

세계적 양질의 환경적인 클럽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임핑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탄력적인 그린피 시스템 운영

- 인터넷회원 예약시
- 월회 최대 3만원, 주말 최대 4만원까지 할인가능
- 예약 : www.hpsynergy.co.kr 061320-7700, 7714



■ KIA 일본 미야자키현 마우리 캠프



뒤편에 보이는 것이어? 7일 일본 미야자키현 휴가시에 위치한 오쿠라 가하마구장에서 전지훈련중인 KIA 투수 손영민(오른쪽)이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KIA이거즈제공

젊어진 호랑이 군단 4년차에 고참 특혜?

“호랑이는 4년차가 고참?”
‘새끼 호랑이’ 차일목, 고우석, 임준혁이 어느 새 고참대에 합류했다.
올 시즌 대대적인 세대교체로 KIA 선수단의 연령층이 젊어지면서 데뷔 4년차인 이들이 일본 캠프에서 독방을 배정받는 등 고참 대우를 받게 된 것.
지난 2일 일본 미야자키에 가을캠프를 치른 KIA 선수단은 프로구단의 특성상 ‘1인1실’이 원칙이지만, 협소한 현지 호텔 사정 때문에 일부 선수들은 ‘2인1실’을 배정받았다. 그 기준은 철저히 연차순으로 주전·비주전을 떠나 무조건 4년차 이상만 독방이다. 성적이나 팀 공헌도는 방 배정과는 별개다.
지난 1월 스프링 캠프 때도 같은 호텔을 이용했는데, 당시에 고참들이 많은 탓에 5년차인 투수 김진우도 ‘2인1실’을 배정받았다.

차일목·고우석·임준혁 등 독방 사용

이용규·박정태 1년차로 2인1실 배정

이번 캠프에선 우선 조범현 감독을 비롯한 모든 코칭스태프는 독방을 쓴다. ‘최고참’ 이종범과 김종국, 심재학, 김상훈 등 30대 선수들도 당연히 독방이다.
4년차인 차일목, 고우석, 임준혁 등도 고참급으로 분류돼 독방을 사용중이다. 3년차인 이용규와 박정태는 ‘한 곳’ 차이로 아직까지도 ‘2인1실’로 배정됐다.
손지환과 동기생인 ‘늦깎이 신인’ 권윤민은 KIA 입단 첫해인 지난해 송산과 함께 방을 썼지만, 이번 캠프부터 나이 등을 고려해 독방을 배정받는 특혜를 누리게 됐다.
그런데 4년차 중에서도 ‘2인1실’을 쓰는 선수가 있다. 다름아닌 투수 전병두다. 전병두는 1년차인 투수 진민호와 함께 방을 쓰고 있다.
지난해 부진한 개인성적 탓에 구단에 미운털이 박힌 것일까. 다행히도 본인도 자청했다고 한다.
평소 혼자있기 싫어하는 전병두는 올 시즌 내내 돌아 사귀느냐는 의심(?)을 받을 정도로 절친하게 지낸 2년 후배 진민호와 같은 방을 쓰길 원했다고 한다.
김명근 KIA 운영팀장은 “호텔 객실이 다소 부족해 철저히 고참순으로 방을 배정했다”면서 “2인1실을 배정받은 선수는 평소 친분도 등을 따져 불협화음이 없도록 짝을 맺어줬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타이거즈 프런트 인사

KIA타이거즈가 7일 대기명령중인 직원들의 인사를 단행했다.
윤기두 부장은 운영팀내 2군 총괄업무 맡게됐고, 조찬관 과장은 운영팀내 스카우트 총괄 담당, 오현표 차장은 마케팅 팀, 장관기 차장은 운영팀으로 각각 배치됐다.
또 홍보팀 전준홍 사원과 마케팅 이석범 사원, 스카우트 김태완 과장과 2군 매니저 김도균 사원이 각각 자리를 맡아왔으며 마케팅팀 최병환 사원이 운영팀 통역으로 자리를 옮겼다.

올 대상·최저타수상·상금왕·다승왕 확정

신지애 “부담없이 9승 간다”

내일 KLPGA 2007 왕중왕전 출전

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4관왕을 확정지은 신지애(19·하이마트)가 부담없이 9승에 도전한다.
‘지존’의 자리를 확고히 한 신지애는 9일부터 사흘간 제주 로드랜드 골프장(파72·6천231야드)에서 열리는 MBC투어 로드랜드 2007 왕중왕전 예스오일 챔피언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 타이틀과 상관없이 올 시즌에 못다 이룬 기록 달성에 주력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올 시즌 8승을 수확한 신지애는 대상, 최저타수상, 상금왕, 다승왕을 확정했고 남아있는 목표는 통산 상금 10억원 돌파와 시즌 두자릿수 우승이다.
현재 통산 상금이 9억6천만원인 신지애는 이 대회에서 우승 상금 6천만원을 차지하면 10억원을 돌파하는데 우승을 못하더라도

마지막 정규대회인 ADT 챔피언십에서 대기록에 도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시즌 10승 달성이라는 대기록도 남은 2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해야 가능하지만 신지애의 무서운 기세를 볼 때 불가능한 것만도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안선주(20·하이마트), 지은희(21·캘러웨이)를 포함해 KLPGA 소속 73명, 아시아투어에서 뛰고 있는 상금 상위랭커 등 총 84명이 출전해 신지애를 견제한다.
다른 경쟁자들보다 신지애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체력이다.
올해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여자월드컵골프대회를 시작으로 강행군을 펼친 신지애는 US여자오픈 등 미국여자프로골프(KPGA) 투어를 비롯해 전 세계를 돌며

총27개 정규대회에 출전했다.
강철같은 체력을 가진 신지애라도 시즌 막바지에 오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지애는 “올해가 두자리 승수에 도전할 좋은 기회라 생각한다. 언제 또 8승을 거둬 도전해보겠는가”며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대회가 열리는 로드랜드 골프장은 페어웨이와 그린에 넓어 무난한 코스로 평가되지만 한라산의 영향으로 생기는 그린 위 착시 현상과 강한 바람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대회는 MBC와 MBC ESPN이 중계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중계 일정
▲9일 1라운드 MBC 오후 1시50분~4시
▲10일 2라운드 MBC ESPN 오후 3시~5시
▲11일 3라운드 MBC ESPN 오후 2시~3시30분 / MBC 오후 3시25분~4시25분



프로야구 ‘몸값 전쟁’ 돌입

KBO, KIA 이재주 등 FA 선수 6명 공시

■FA 신청자 현황

| 구단명 | 선수이름 | 포지션 | 올해 연봉 | 비고 |
|-----|------|-----|---------|--------|
| SK | 조용현 | 투수 | 2억3천만원 | 재계약 신유 |
| | 이호준 | 내야수 | 2억5천만원 | 신유 |
| 두산 | 김동주 | 내야수 | 4억2천만원 | 신유 |
| LG | 류택현 | 투수 | 6천500만원 | 신유 |
| | 조인성 | 포수 | 2억5천만원 | 신유 |
| KIA | 이재주 | 내야수 | 1억원 | 신유 |

단을 제시해야 한다.
FA 원 소속 구단은 7일 이내에 보상선수 1명과 FA 선수 전년도 연봉의 50%인 상한 금액의 200%를 받거나 보상선수 없

이 FA 선수 전년도 연봉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받을 수 있다.
이번 FA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선수는 김동주.
지난 1998년 전신인 OB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한 김동주는 10년 간 두산에 만 몸 담은 프랜차이즈 스타이면서 통산 타율 0.311과 홈런 196개를 기록한 파워 히터이다.
일본프로야구 라쿠텐 골든이글스와 소프트뱅크 호크스 등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동주의 몸값은 2004년 말 삼성 유니폼을 입으면서 4년 최대 60억원 대박을 터뜨렸던 심정수가 기준이 될 공산이 크다.
김동주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밝히지 않은 채 일본 진출과 국내 구단 이적, 두산 잔류 등을 놓고 저울질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
같은 서울 구단 LG에서 뛰었던 조인성은 최근 구단에 몸값을 밝히지 않은 채 4년 장기 계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의 4번 타자 이호준과 베테랑 잠수함 투수 조용현도 8일부터 아시아 4개국 챔피언결정전이 열리는 일본 도쿄에서 구단의 민경삼 운영본부장과 협상을 진행한다.
SK는 이호준과 조용현을 모두 잡기로 했고 둘도 재계약을 희망하고 있어 구체적인 계약조건만 접근되면 우선협상 마감일인 17일 이전에 계약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7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베이징올림픽 야구 대표팀-상비군 연습경기에서 대표팀이 큰 점수차로 2연패를 당하자 김경문 감독(오른쪽)이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선동열 수석코치도 애가 탄 듯 음료를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답답한 올림픽 야구 대표팀

상비군에 1-9 대패...2연패

류제국 30이닝 4실점 '실망'

패극마크를 노리는 미국프로야구 마이너 리그 투수 류제국(24·램파베이 데블레이스)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을 앞둔 시험 무대에서 실망스런 투구를 보여줬다.
올림픽 예선 대표팀 후보 30명에 포함된 류제국은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상비군과 두 번째 평가전에 선발로 등판했지만 3이닝 동안 홈런 1개 등 안타 5개와 볼넷 3개로 4실점했다.
반면 상비군은 투·타의 짜임새와 강한 투지를 앞세워 두 경기 연속 승전가를 불렀다.

상비군 선발 투수 윤성환(삼성)이 3.1이닝을 2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고, 1차전 때 구원등판해 2.1이닝을 무안타 무실점의 퍼펙트 피칭을 보여줬던 상비군 투수 장원삼(현대)은 4회 1사 1루에서 나와 2.1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아 부상 낙마한 구대성(한화)을 대신해 대표팀 좌완 공백을 메울 희망으로 떠올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美 샌디에이고 투수 매덕스

골든글러브 17회 수상 최다

또 상비군 5번 타자 박석민은 홈런 1개 등 5타수 2안타 5타점의 화끈한 방망이 실력을 뽐냈다.
이와달리 대표팀 중심타선의 이대호(롯데)가 3타수 2안타로 제 뒀을 뿐 장성호(KIA)와 김동주(두산)는 3타수 무안타의 빈 방망이를 돌리는 등 6안타에 그쳐 12안타를 때린 상비군과 대조를 이뤘다.
한편 대표팀은 이날 선발 류제국과 중간 계투 류택현(LG)의 동반 부진과 타선의 침묵이 겹쳐 상비군에 1-9로 완패, 1차 평가전 5-10 패배에 이어 또 한번 체면을 구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제구력의 마술사’ 그렉 매덕스(41·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미국프로 야구 사상 최다인 17차례 ‘황금 장갑’을 썼다.
매덕스는 7일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발표한 내셔널리그 골든글러브 명단에서 투수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개인통산 17번째 최고의 투수 영예를 안았다.
이로써 매덕스는 투수 부문의 짐 카트와 유격수 부문의 브룩스 로빈슨의 16차례를 뛰어 넘어 메이저리그 역사에서 가장 많이 골든글러브 수상자에 뽑힌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